

**광림교회**  
 KWANGLIM  
 CHURCH  
 등록번호 다-467/발행인 김정석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TEL. 2056-5600  
 www.klmc.net

#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제33회 호렙산 기도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5.31~7.9  
매일 새벽 4:45



##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소망의 기도로 생명수 은혜를

제33회 호렙산 기도회, 5월 31일(월) ~ 7월 9일(금)까지 40일간 진행

광림교회의 오랜 기간 기도의 영성을 이어 온 호렙산 기도회가 본당 대예배실과 광림남교회, 광림서교회, 광림북교회에서 5월 31일~7월 9일까지 매일 새벽 4시 45분에 시작된다. 올해로 33회를 맞이한 호렙산 기도회는 매년 성령강림절을 기점으로 40일 동안 진행된다.

호렙산 기도회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추진력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신앙 여정을 이끌어가는 기도의 자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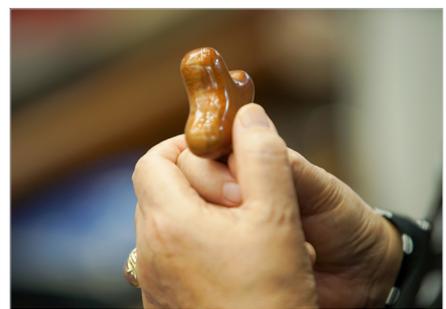
지난 32년간 광림의 성도들은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으며, 믿음이 자라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응답의 역사를 보았다. 그래서 일년 중 가장 기도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서 기도에 몰입한다. 간절함으로 준비기도를 하고 새벽을 깨우며 정결한 마음

으로 호렙산에 오른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과 급격한 변화 속의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을 돌파하여서 기도로 이기고 승리하는 여호와 닮은 열매를 소망하며 40일을 완주하기까지 각자의 호렙산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

이번 <제33회 호렙산 기도회>의 주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Streams of living water will flow)"(요한복음 7장 38절)이다. 40일간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김정석 담임목사가 말씀을 전하며 매일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을 위한 공동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 중보기도의 시간이 이어진다.

호렙산 기도회는 북한교회 회복과 코로나 극복, 정치와 경제 등 사회의 어려운 문제들, 교단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왔으며 광림교회를 넘어 한국 교회의 중보기도의 모델이 되어왔다. 현재 일산광림교회, 상계광림교회, 광명광림교회, 광림동교회, 신애교회, 은평

빛의숲교회 등에서도 호렙산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모스크바 광림교회, 야마가타 광림교회, 안디옥 개신교회, 베트남 광림교회에서도 동시 진행되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광림의 수많은 성도들이 세계 각국에서 인터넷방송, 유튜브, 웹사이트 등을 통해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다.



호렙산 기도회에서 뜨거운 찬양과 말씀으로 성령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전으로부터 흘

러나오는 생명수가 생명의 강, 소성의 강, 치료의 강,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강을 이루어 심령의 에덴, 가정의 에덴, 교회의 에덴, 삶의 에덴을 만들게 될 것이다. 성도들은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호렙산에 올라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삶 속에 이와 같은 4개의 강(비손, 기혼, 핫데겔, 유프라테)이 흘러 넘쳐서 대한민국을 넘어 북한과 열방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시 46:5). 새벽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호렙산 새벽기도회에 나아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부르짖는 광림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향기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

변영혜 기자 yhbyun1010@hanmail.net

- 2 광림의 강단  
나를 새롭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
- 3 광림 스토리  
광림교회 홈페이지 개편
- 4 하나님을 만나다  
생생속회
- 5 다음세대  
청년부 상반기 예비속장교육
- 7 특집  
장천의 아흔인생과 목회신학 이야기
- 8 특집  
광림교회 홈페이지

# 나를 새롭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린도후서 5장 17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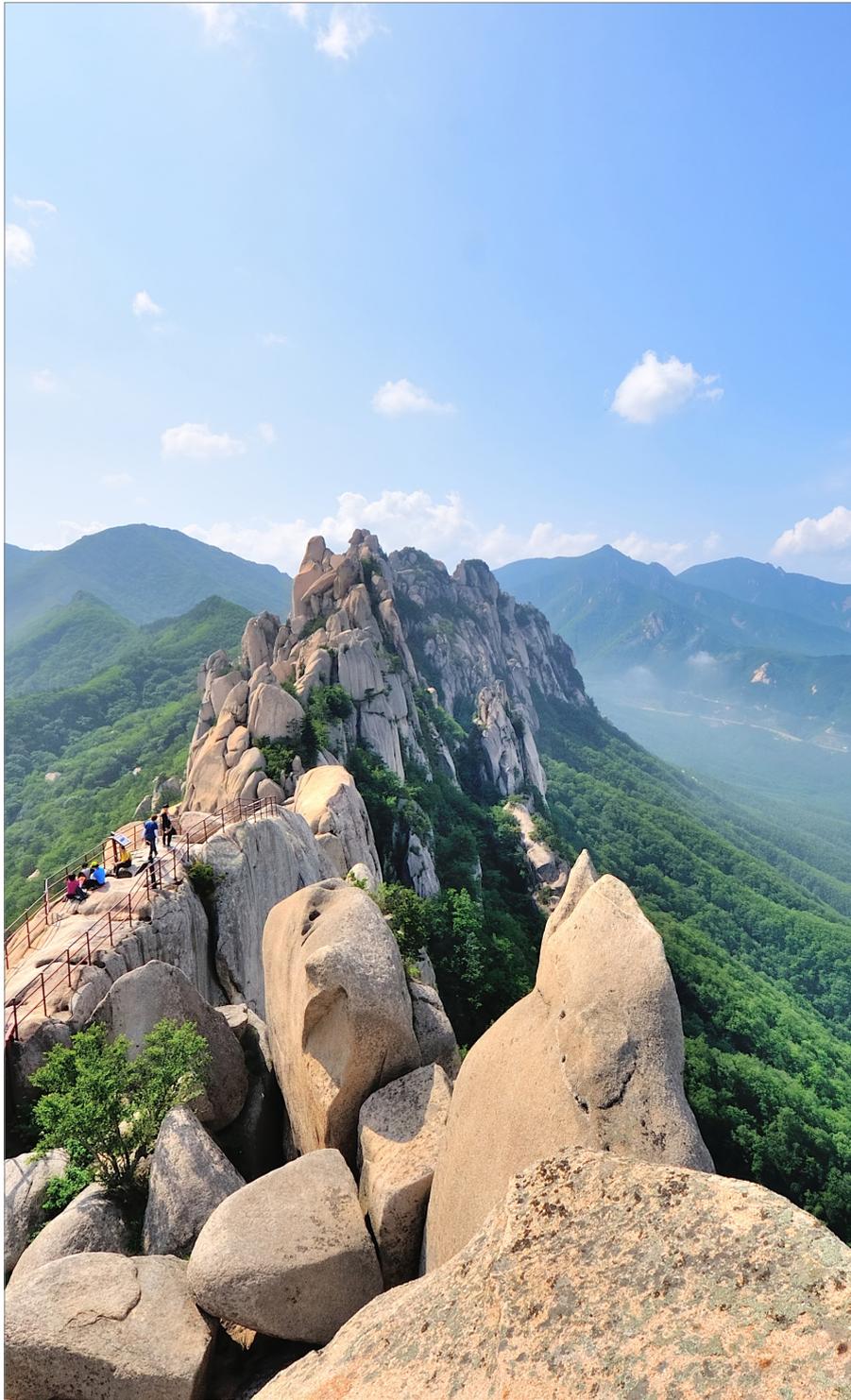
무엇을 삶의 중심으로 삼느냐에 따라 인생의 목표와 과정 그리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과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무엇보다도 십자가 복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전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성도들은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연합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 새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십자가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바로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이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곳이며, 우리가 새롭게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단순히 인간의 이성이나 철학적인 접근, 종교적인 교리 등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은 바로 체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곳에 완전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지 않다면, 여전히 다른 것이 우리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 첫째, 존재가 새롭게 됩니다.

성경의 핵심 원리 중 하나는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도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한 '죽다'라는 표현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된 삶은 죄에 대하여 죽었으며, 죄인의 삶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생명이 박탈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더 깊은 의미에서 이제 생명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힘을 잃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이 죽어 매일 힘을 잃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죄의 본성과 자아가 죽고, 그 죽음이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뿐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를 중생(重生, rebirth)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중생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며, 새로운 원칙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적인 변화로 이끄시며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



고린도후서 5장 14-17절  
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6.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 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죽음에서 시작합니다. 죽지 않고는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죽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으로 부활의 축복을 경험하며, 성령과 함께 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 둘째, 언행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을 뜻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 6:33)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거듭난 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말과 행동의

변화 여부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하지 않는 것은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의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말할 대로는 행동하지 못하면서 변명만 늘어놓고,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서는 억울해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는 들춰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모여 장황한 말과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옛 사람의 성품입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했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십자가 위에서 옛 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성품을 따라 살 때는 음행, 주술, 우상 숭배, 분쟁, 시기, 질투, 분열, 방탕의 열매를 맺었으나, 이제 성령을 따라 새롭게 된 우리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관용, 신실함, 절제 등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물론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싸움은 한 순간에 끝나지 않으며, 오히려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했다면 영과 육의 싸움은 더 격렬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경험,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십자가 은총을 경험하고, 그 은총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봅시다. 여전히 죄와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옛 사람을 죽이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가.

## 셋째, 다른 사람을 향한 시각을 변화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들은 서로 화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분쟁, 미움, 시기, 질투 등이 생기는 이유는 십자가의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어떤 시선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 모두도 서로를 위해 죽기를 바라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을 위해 죽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곧 영원히 사는 길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원리'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아가 죽어지고, 욕심과 정욕이 죽어지며, 특히 다른 사람을 향했던 날카롭고 부정적인 모든 시선들이 제거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며, 이 땅에서 참된 화목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빛의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 02-2056-5771

# 광림교회 홈페이지 개편... '온라인 예배' 강화



광림교회는 온라인 예배시스템을 더욱 강화한 새로운 홈페이지를 5월 30일 공개했다. 13개월의 준비작업 끝에 탄생한 홈페이지는 코로나19로 변화된 예배 환경을 대폭 반영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사용자 입장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원하는 기능을 보다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직관성과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심플한 디자인과 함께 메뉴 구성을 단순화하고 성도들이 많이 찾는 '광림예배'와 '광림뉴스'를 전면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기존 홈페이지 방문 고객 중 60% 이상이 모바일 기기 접속임을 고려해 모바일 반응형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어느 환경에서 접속해도 최적화된 크기와 디자인으로 쾌적하게 이용 가능하다.

새 홈페이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첫 화면의 '실시간 온라인 예배' 바로가기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예배시간에 맞춰 온라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음 예배 때까지 남은 시간을 표시해 기도도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광림의 영적처소인 광림수도원과 국제광림비전랜드 등을 비롯한 부속기관과 지성전의 역사와 이용방법 등도 다양한 사진과 함께 보여준다. 또 68년 교회 역사 속에 흐르는 광림의 목회철학과 5대 전통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과 시대적 사명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회 각 기관과 부서, 위원회와 해외선교회 등 광림교회만의 풍성한 이야기를 담았다.

새롭게 선보인 '온라인성경쓰기'는 필기도구 없이 인터넷만 연결되면 손으로 하는 필사보다 더 빠르게 키보드로 성경을 쓸 수 있어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개인, 그룹 쓰

기도 가능해 가족 또는 속회원들이 함께 작성할 수 있으며 순위까지 매겨져 은근한 경쟁심리와 재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도들이 자주 찾는 주보와 오시는 길, 온라인헌금 안내는 킷메뉴로 구성해 편의성을 높였으며 교회생활과 관련된 각종 신청서 양식은 다운 받을 수 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개편된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광림성도들의 영적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온라인 사역의 중요성은 계속될 것이다. 홈페이지를 넘어 성도들의 기도 위에 '광림모바일교회'가 세워져 세계 도처에서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홈페이지 관련 문의: 02-2056-5631

이선아 기자 andy8950@naver.com

## 포토 뉴스



존 웨슬리 회심 283주년 기념주일 5월 23일 '존 웨슬리와 감리교회' 리플렛을 배부했다.



청장년부 가정교육세미나 5월 가정의 달 청장년부 가정교육 세미나를 진행했다.



제33회 호렙산 기도회 본당 로비에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담을 기도의 벽이 세워졌다.

## 담임목사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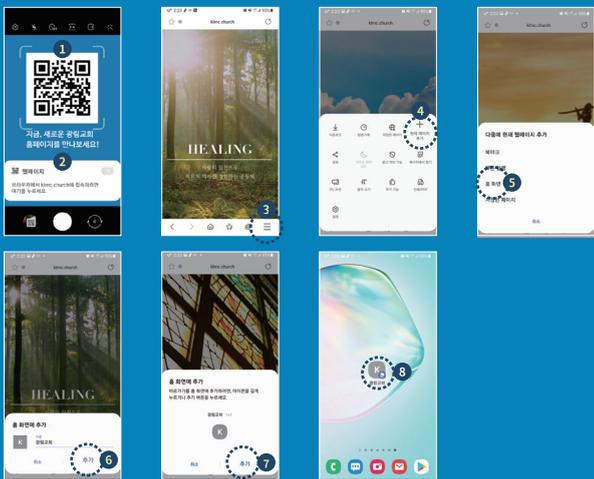
- 5/11 감리교군선교회 실행위원회
- 5/12 서울남연회 각연합 기관장회의
- 5/13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연석회의
- 5/14 한국개신교회 최초목사안수자 120주년 기념예배
- 5/16 선교주일 유아세례
- 5/20 서울남연회 여성교회대회
- 5/22 월간회의
- 5/23 성령강림주일 웨슬리 회심주일
- 5/26 감리교 총회실행위원회 수요 치유의 신학
- 5/27 서울남연회 감리사협의회의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net

# 핸드폰에서 만나는 새로운 '광림교회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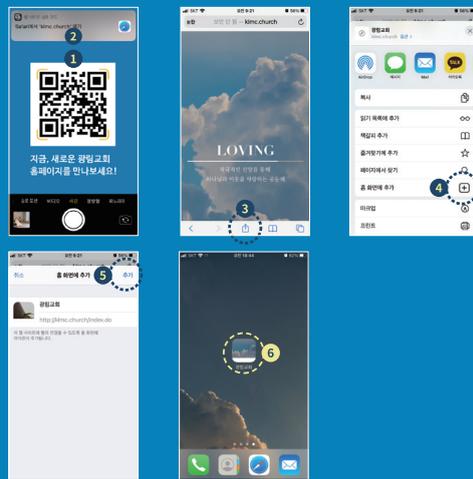
## 1. 홈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

### <삼성폰, LG폰>



1. QR코드에 카메라를 대면
2. 화면에 보이는 주소창 터치!
3. 오른쪽 하단 ≡ 버튼 선택
4. [+ 현재페이지 추가] 선택
5. [홈 화면] 선택
- 6, 7 [추가] 버튼 누르면
8. 홈 화면에 새로운 광림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이 생깁니다.

### <아이폰>



1. QR코드에 카메라를 대면
2. 화면에 보이는 주소창 터치!
3. 가운데 ⏏ 버튼 선택후 화면 하단에
4. [홈 화면에 추가] 선택
5. [추가] 버튼 누르면
6. 홈 화면에 새로운 광림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이 생깁니다.

## 2. 홈페이지 버튼 활용 안내



지금, 새로운 광림교회 홈페이지를 만나보세요!

※핸드폰 카메라를 QR코드에 대고, 화면에 보이는 주소창을 터치하시면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내 인생의 말씀

내 마음의 보물상자



사람은 누구에게나 마음 깊숙이 간직한 보물상자가 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화나거나 아플 때 삶의 희노애락 속에서 문득문득 보물상자를 열어 그 속에 담긴 귀한 보물을 보며 때로는 위로 받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웃기도 하며 나를 돌아보기도 한다.

나의 보물상자...

벌써 19년이 훌쩍 지나가 버린 지금, 아버지는 2003년 4월에 짧지만 힘들었던 투병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셨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긴 말씀을 묘비에 새기고 내 마음 깊숙이 보물상자에 담아두었다.

잠언 3장 5절 말씀과 함께 단 한마디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말씀은 '겸손'이었다. 그때는 너무도 어렸기에 '겸손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겸손히 대하고 어디서나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라는 말씀으로 단순히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겸손하게만 살면 되겠거니 하며 열심히 살아온 19년이 지난 지금 20년이면 강산도 2번 바뀐다는데... 비로소 이제야 잠언 3장 5절 말씀의 뜻을 알 것 같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잠 3:5)

아버지께서는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지혜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히 살기를 원하셨던 건 아닐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바라셨다는 걸...

이 모든 것들도, 겸손도 지혜도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걸...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또 울기도 하지만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생각하며 난 오늘도 마음 속에 간직한 빛바랜 보물상자를 꺼내며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려 본다.



송승임 권사 (여성교회총연합회 총무)

生生  
생생 속회 (53회)  
6교구 1지구

“열정과 믿음의 속회에서 영적 에너지 충전해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나눔의 소중함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속회를 소개한다. 6교구 1지구는 젊은 직장인들로 구성되어 열정으로 믿음 생활하며 15년 이상 함께 속회를 드리고 있다.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도 방학 한번 없이 속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가치를 세워나가는 신실한 속회이다. 얼마 전부터 코로나로 모임이 힘들어지자 온라인 속회로 전환하고 매주 목요일 밤 9시 30분에 각자의 자리에서 디스코드 플랫폼으로 속회를 드리고 있다.

지구장인 김효신 권사를 중심으로 강미경 권사, 이선희 권사, 정시원 성도, 백인정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배를 드리고, 공과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서로가 자유롭게 나눈다. 또한 모든 속원이 매주 돌아가면서 속회를 인도하기에 자연스럽게 리더의 훈련을

하며 더욱 영적으로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

김효신 권사는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15년 전 같은 유통업을 하는 이선희 권사와 백인정 성도를 먼저 속회로 인도했다고 한다. 김 권사는 “광림교회 속회에서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믿음의 훈련을 받았어요. 저도 지구장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가족을 만나게 해주셨지요. 속원들이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밤에 속회를 드리는데 저희는 피곤함도 있고 서로가 영적인 힘을 주고 받으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강미경 권사는 “오늘 속회를 인도하는 날이라 공과와 말씀을 꼼꼼하게 읽고 기도하며 목사님께서 올려주신 영상으로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신

것처럼 나의 삶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형통케 되는 축복을 받을 줄 믿어요”라고 말했다.

늘 활기차고 열정적인 이선희 권사는 “김효신 권사님은 삶의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늘 문제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고 말해 주셨어요. 반복해서 듣다 보니 어느새 제가 이웃과 친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속회에서 받은 훈련이 삶에 적용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라고 고백했다.

정시원 성도는 “살아가다 보면 성품이 좋은 사람도 다른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다 내가 먼저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속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축복을 주신 것에 감사드려요”라고 했다.

청년부에서 리더로 활동했고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백인정 성도는 “직장에서 일하다 보니 부딪히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삶 속에 빛이 되라고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이겨낼 위로와 힘을 얻어요. 그렇게 속회는 나의 삶과 세상을 믿음으로 이어주는 고리인 것 같아요”라는 신앙고백을 했다.

소현수 기자 camancow@naver.com

‘스데반 가족찬양단’ 은혜로운 찬양의 밤 이끈다

5월 30일 주일저녁 대예배실에서



5월 30일 주일 저녁예배시간에 남선교회총연합회(회장 박기연 장로) 스테반 가족찬양단이 은혜로운 <찬양의 밤>을 인도한다.

찬양의 밤은 주일저녁예배 활성화를 위해 2019년 1월부터 시작했다. 지난 한 달을 감사하고 새로운 한 달을 기다리며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드리는 매월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는 형식이 얽매이지 않고 누구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

스테반 가족찬양단은 말 그대로 남선교회 선교회 중 하나인 스테반 선교회의 가족들이 팀을 이루어 찬양을 하는 것이며 현재 11개 선교구에서 50명이 참여하고 있다.

찬양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 헌 권사(33교구)는 “스테반 회장단 중심으로 모임을 가졌을 때 선교회 부흥을 위해서 무엇이든 한번 해보자는 열의가 많았다. 찬양도 그중 하나였다. 선교회 특성상 어린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자녀는 따로 휴게실이나 사랑방 등을 마련하여 함께 돌보아 준다. 2019년 춘계산상기도회 때 처음으로 성도들 앞에서 찬양을 하였으며, 금년 2월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에도 많은 호응을 받았다”고 했다.

그동안 남선교회에서는 여러 선교회 중에서도 스테반선교회에 대하여 1년에 한차례 폐

스티발이나 전체의 별도모임을 가지는 등 스테반선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다.

박기연 장로는 “스테반은 남선교회 중에서 가장 젊은 세대들이며 향후 광림교회 미래와 직결된다. 선교회 부흥이 있으려면 우선 많이 모여야 하며, 소통이 잘 되고 모임에 활기가 넘쳐야 한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가족이 다 참여할 수 없어 아쉽지만, 찬양을 통해 스테반선교회가 살아 나고 부진한 선교회도 더욱 부흥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득섭 기자 7sublee@naver.com

# 광림청년부 2021년도 상반기 예비속장교육

6월 5일(토) ~ 26일(토) 4주간 진행



### 신청방법

1.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사무실에 비치)
2. 담당 속장님에게 추천서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3. 교구 전도사님에게 신청서와 추천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5월 9일(주일) ~ 5월 30일(주일)  
※ 신청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장소

사회봉사관 5층 세미나 1실 & 온라인(Zoom)

문의 | 전선규 전도사 T.010-3166-1450

광림교회 청년부는 6월 5일(토) ~ 6월 26일(토)까지, 4주간 예비속장교육을 진행합니다. 2020년 하반기 예비속장교육에는 7명의 청년들이 수료하였고, 그 중에서 5명이 속장으로 세워져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인 속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1년도 상반기 예비속장교육은 현재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 주님의 부르심을 분별하며 지원 사유를 적은 본인의 신청서와 담당 속장의 추천서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부 예비속장교육은 4주간 진행됩니다. 1~3주차에는 속장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을 교육합니다. 1주차에는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2주차에는 감리교 속회와 광림교회 전통에 대하여, 3주차에는 속장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4주차에는 제자도에 대한 강의와 함께 앞으로 속장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헌신 서약서를 작성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비속장교육은 4가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삶 나눔입니다. 3가지 질문(감사, 회개, 사랑 실천)을 가지고 신앙적인 대화로, '교제를 나눕니다.

두 번째는 강의입니다. 속장에게 중요한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4주 간의 교육기간 동안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기대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합니다.

네 번째는 '식탁의 교제'입니다. 교육을 마치게 되면 교회 근처 식당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합니다. 식사는 해당 주의 교육을 진행한 담당 교역자가 자원하여 대접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 먹을 것까지 대접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 강의를 진행한 교역자는 식사까지 섬깁니다. 본을 보임으로서 훈련생에게 섬김을 전수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식탁의 교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곁에는 12명의 사도(마 10:2~4), 70명의 제자(눅 10:1), 500명의 부활의 증인(고전 15:6)이 있었습니다. 예비속장교육은 500명의 부활의 증인에서 70명의 제자로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훈련생들이 4주간의 예비 속장교육을 통과하고, 광림교회 청년부를 대표하는 속장(제자)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진선규 전도사(청년부)

## 김정석 담임목사의 추천도서

### 책으로 쌓는 교양



#### [팀 켈러의 부활을 입다]

##### 팀 켈러 지음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놓치고 있는 현대 기독교를 향한 팀 켈러 목사의 부활의 사실성과 참의미에 대한 고찰을 기록한 책이다. 특히 '죽음, 팬데믹, 불의, 사회 붕괴로 두려움이 일상이 된' 각국의 현실에서 왜 다시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물음을 제기하며, 부활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오늘을 건디게 할 진짜 희망을 제시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이제 우리 안에 있다. '나를 위해 가장 깊은 어둠으로 뛰어드신 예수'를 바라보며 '다시 사신 예수' 안에서 안식할 때 두려운 현실 한복판에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됨을 깨우친다.

#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5월 16일 주일, 2부와 3부예배에서 18명의 유아들이 김정석 담임목사의 집례로 유아세례를 받았다.



신형규 부:신진희 모:이안아



곽기웅 부:곽진현 모:주희진



정 슌 부:정용식 모:문지혜



이서인 부:이영근 모:오슬샘



채사라 부:채기영 모:이지운



채혜은 부:채건욱 모:장유리



이로운 부:이준영 모:권지영



유하현 부:유심원 모:박예진



박세론 부:박광영 모:유미형



안하은 부:안승국 모:한기남



김지유 부:김인배 모:김혜진



조에서 부:조남기 모:정승혜



김하성 부:김주성 모:손서경



박이든 부:박대준 모:허영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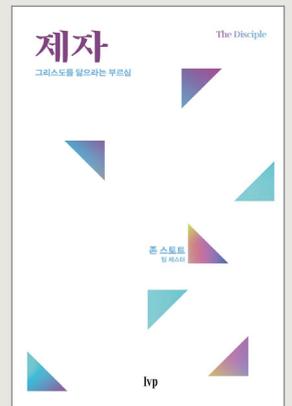
김은별 부:김 웅 모:김유미



정보름 부:정희원 모:유예진



이예준 부:이웅기 모:박상원



#### [제자: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부르심]

##### 존 스토트 지음

이 책은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 스토트의 책을 21세기 독자들을 위해 다섯 가지 주요 주제로 기초하여 나누고 개정한 시리즈물 중 하나이다.

기독교 제자도가 요구하는 다양한 책임들 중 네 측면을 탐구한다. 귀를 기울여 듣는 것, 지성과 감정이란 인간 본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섬기는 것, 마지막으로 사랑이다. 이것들은 그 중요성에 비해 과소평가되거나 간과되는 경향이 있는데, 저자는 이 네 가지 책임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수적인지 보여준다.

위 책들은 광림사회봉사관 1층 '빛의 숲' 서점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목회선교지원실 02-2056-5730

### 넓은 마당에 가득찬 아이들의 웃음 소리

- 목회현장 -



유용찬 목사 (광림남교회)

며칠 전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유현준 교수의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책 안에 '교회는 왜 들어가기 어려운가?'라는 챕터가 있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 교회는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에 예배당 중심의 건축을 하는데 성도가 늘어나면 주변 땅에 건물을 올리면서 건물이 가득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는 외부 사람들이 들어가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건물이 크면 특별한 목적 없이 들어가는 것이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넓은 마당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 앞에는 큰 광장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지을 때 돌을 깎고 작업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인데, 다 짓고 난 뒤 그곳은 넓은 광장이 되었습니다. 넓은 광장은 일반 사람들과의 벽을 낮추어 안으로 들어오기 훨씬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같은 브랜드라도 백화점에 위치한 매장이 거리의 매장보다 매상이 높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우리 광림교회는 넓은 밀레니엄 공원을 갖고 있고, 남교회는 넓은 마당 공간이 있습니다. 세상과 소통하고 소망을 전하려는 믿음의 진심이 담겨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넓은 공간에서 함께 웃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에게 좀 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하다세 예배 (하나님의 다음세대 예배 세우기)라는 이름으로 지난 16일 청년, 청장년, 교사들이 함께 모여 다음세대와 함께 어와나(AWANA)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어와나는 아이들과 게임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프로그램인데 교회 안팎에서 아이들이 뛰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한 후, 넓은 광장을 뒤덮은 웃음 소리가 교회 전체, 동네 가득 퍼져 나갔습니다. 코로나로 잔뜩 움츠린 요즘이지만 아이들의 웃음 소리는 모든 사람을 즐겁게 했습니다. 예전 어릴 때 동네마다 교회는 만남의 장소였고, 놀이문화의 중심이었는데, 조금이나마 그 모습이 회복된 것 같아 기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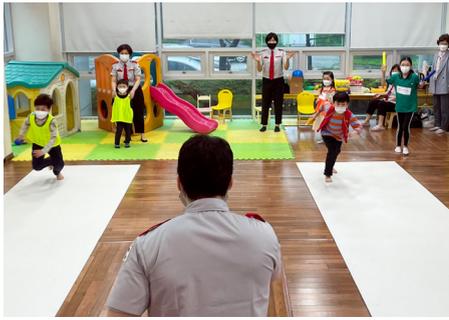
가정마다 온라인 수업 덕에 더 일찍 컴퓨터와 미디어에 눈 뜬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무엇이 옳은 교육 방향인지 모를 이 때이지만 작은 해결책이 있다면 넓은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하면 아이들은 밝고 건강하게 자랄 것 같습니다.

## 다음 세대를 세우는 '어와나'(AWANA)

<광림남교회>



광림남교회 교육국은 지난 5월 16일(주일) 오후 2시부터 교육관 2층 영아부실에서 어와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어와나(AWANA)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 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의 약자로 복음과 재미난 프로그램들을 통해 다음세대를 세우는 모임입니다.



16일 하다세 예배(하나님의 다음세대 예배)의 한 부분 속에서 어와나를 시작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부장님과 선생님들은 '처음'이라는 기대와 설렘이 있었지만, 또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 어와나 교사

가이드 북을 다시 펼치며 어와나 교사에 필요한 부분들을 익히고, 배우고, 외우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교사 모임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당일 아이들과 함께 주제 말씀과, 어와나 송을 익히며 어와나 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준비한 활동들(풍선 릴레이, 콩 주머니 릴레이, 말씀 활동, 시상식 등)을 통하여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모임을 통하여 복음과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하나님의 다음세대가 많이 세워지고, 확장될 줄 믿습니다.

한준구 전도사 (광림남교회)

## 유아세례, 믿음의 자녀로 자라가요

<광림서교회>



지난 5월 2일, 5월 16일에 유아세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광림서교회 네 명의 유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겠다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채사라 어린이 부모(부:채기영 모:이지윤)는 "유아세례를 통해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이 자녀의 구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라의 삶이 곧 예배가 되며, 믿음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길 원합니다. 사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삶,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준 어린이 부모(부:이용기 모:박상원)는 "예준이가 건강히 잘 자라게 하시고 유아세례를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준이의 삶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우선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모인 저희도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기도와 감사로 예준이를 잘 양육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채혜은 어린이 부모(부:채건욱 모:장유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혜은이를 사랑하며 기도하며 양육하겠습니다. 혜은이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안에

건강히 자라나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지혜롭고 온화한 혜은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서은서 어린이 부모(부:서원진 모:전부연)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물 같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유아세례를 통해 믿음의 명문가문을 이루어나가게 되어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은서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바르고 성숙된 신앙을 잘 가꾸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하며, 청지기인 부모로서의 맡은바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부모님들의 다짐과 기도제목처럼 이번 유아세례식을 통해 세례 받은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조아라 전도사 (광림서교회)

## 적극적인 신앙으로 풍요로운 창조의 삶을!

<광림북교회>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와 전도에 힘을 쓰고 있는 광림재단의 모습은 많은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본당 여성교회에서 해남감리교회 건축을 위한 All-Line 바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북교회 여성교회도 힘을 보태기로 하였습니다.



5월 중순, 북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바자회를 열어 동참하고자 했으나, 4월 말 의정부 인근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바람에 바자회는 전격 취소되었습니다.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지 기도하고 고민하던 중, 바자회 물품을 교회 앞마당과, 교회 옆 산책로에 내다 놓고, 지나가는 이들에게 팔면서 전도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본당 여성교회에

서도 많은 물품을 지원해 주시고 성도님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셔서 풍성했습니다. 생각보다 물품이 많이 팔렸고, 또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선교후원금을 모아주셔서 제법 큰 금액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는데, 크고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감사와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코로나라고 가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충성하면, 풍요로운 창조의 역사를 허락해주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광림북교회 여성교회가 되겠습니다.

이영애 권사 (광림북교회)



# 김선도 감독의 아흔 인생과 목회신학 이야기

# '장천 울림'

5 최이우 목사(종교교회 담임)



종교교회 최이우 목사는 <목사 김선도1> '목회가 참 신났습니다' 편에서 '나의 스승, 나의 영원한 목회임상학 교수'라는 글을 통해 김선도 감독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적고 있다. 1982년부터 1987년까지 광림교회 부목사로 재임하며 연을 맺은 최 목사는 스스로 제자라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1976년 대학 강의실에서 처음 만난 날부터 영원한 스승임을 고백한다. 아래는 최이우 목사의 글 요약본이다.

**나의 스승, 나의 영원한 '목회임상학 교수'**  
 크지 않은 신장에 딱 벌어진 어깨, 007가방에서 목회학 책을 꺼낸 후 학생들을 둘러보는 자신감과 신념에 찬 눈빛에 나는 완전히 압도되었다. 1976년 목회임상학 교수로 교단에 선 김선도 목사의 첫인상이다. 학생회 일로 정학 처분을 받고 학교를 떠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지낸 후 감신대 4학년에 복학한때다. 졸업을 하면 담임목회를 해야 한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던 내게 김선도 목사는 갈릴리 바다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였다. 한 학기 강의를 통해 어렴풋이 목회에 대한 감을 잡았고 남양주시 성산교회로 담임목회를 나갈 수 있었다. 1982년 5월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를 가까이서 대면하는 영광을 가졌다. 전역을 앞둔 군목으로 대대교회 지원을 부탁드리기 위해 광림교회를 찾았다. 저녁 설교를 요청받아 군인 야전복 차림으로 강단에 선 후 사택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다음날 부목사로 함께 일하자는 놀라운 제안을 받게 되었고, 이 일이 오늘의 목회자로 설수 있게 해준 축복의 통로였다. 광림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시작하며 솔로몬 왕을 가까이에서 보고 감탄사를 연발했던 스바 여왕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다. 김선도 목사의 지도를 직접 받으며 사역한 5년 4개월 시간동안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깨달았고 감사했다. 1987년 안산광림교회 개척 담임목사로 파송 받으며 김선도 목사의 제자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광림교회에서 배운 목회를 현장에서 펼치던 12년의 담임목회는 실로 은총의 시간이었다. 개척 예배를 드린 후 한국교회의 부흥의 추세를 타고 불같이 성장하여 왕십리교회로 임지를 옮기기까지 주일예배 기준 등록 교인이 5,000명에 육박했다. 이후 왕십리교회에서 3년 3개월, 2003년부터는 종교교회 담임목사로 18년째 목회를 하고 있으며 이제 은퇴를 3년 앞두고 있다. 세상일이라면 43년 동안 같은 일을 해왔으면 달인의 경지에 이르렀겠지만 목회는 아직도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 지금 당장 정리해 놓은 원고로 책으로 낸다 해도 70~80권은 족히 되겠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나는 여전히 초년생이다. 1976년부터 지금까지 김선도 목사는 내 목회의 스승이자 롤 모델이다. 내 스스로 목사의 제자라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감히 이 글을 쓰면서 누가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린다.

**목회자 김선도의 철학과 걸은 길**  
 목회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부르심이 출발점이 된다. 김선도 목사의 목회자로서의 출발은 북한군에서 국군으로 5분 만에 변화시키는 기적을 체험한 그 순간이다. 그 기적을 이루어낸 원천은 기도이며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자신을 드러 헌신한 것이다. 5분의 기적에서 시작된 삶은 공군 군목 생활에서 증폭되는 기적을 통해 불가능을 밀어내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이어진다. 목사로서 두 가지 꿈이 있었다. 목회상담과 치유신학을 공부하는 것과 영어를 배우는 것이었다. 기도 중에 유학제안을 받았지만 미국에 갈 비행기 값을 마련할 수가 없었다. 매일 밤 공동묘지가 있는 뒷동산에 올라가 필사적으로 기도했고, 미펜타곤에서 쓰는 비행기의 무료탑승이라는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다. 김선도 목사는 지금도 안 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공동묘지를 떠올린다. 절망이 소망이 되고 상처가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되새기며 하나님은 내가 생각 했던 것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김선도 목사의 적극적 신앙은 철저한 신본주의다. 인간 스스로의 잠재력이 아닌 전적으로 위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바탕으로 한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한다. 첫 번째는 예전적인 예배이다. 광림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주일마다 질서 있게 잘 준비된 경건한 예전이 있는 예배였다. 지금도 그때의 예배를 내 목회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신앙생활의 결정체로 광림교회 성장의 근간을 생동감 넘치는 예배에서 찾



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성경공부다. 매주 화요일 오전과 저녁에 열리는 트리니티 성경공부는 성도들의 믿음과 삶이 성경위에 확고히 세워지게 했다. 세 번째는 뜨거운 기도다.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만큼 부흥의 불길이 타오른다. 김선도 목사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는 기도라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1988년부터 열리는 40일간의 '호렙산 기도회'는 모든 성도가 뜨거운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동적인 믿음의 산실이다.

호간의 교제를 통하여 교회가 한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기회가 되게 하였다.

**삶으로 본을 보이시다**  
 강남의 새 성전 건축은 '선교와 영혼구원'이라는 비전을 이루기위한 성취의 과정이었다. 김선도 목사는 1977년 땅 매입부터 1979년 봉헌예배를 드리기까지 수많은 난관을 성도들과 함께 철야기도와 금식기도를 이어가며 오직 기도로 헤쳐 나갔다. 그 과정에는 탁월한 동역자이며 수제자인 박관순 사모가 있었다. 가정과 교회를 섬기며 '족집게'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교인의 사정을 알고 자상하게 살피며 모든 교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셨다. 김선도 목사는 부교역자에게 사역을 위임하면서도 모든 재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매주 주간회의를 통한 철저한 관리로 교회 규모가 커지며 생기는 사역의 사각지대를 조심했다.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따라간다. 김선도 목사는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치고 평생 행동으로 본을 보이셨다. 1976년 대학 강의실에서 처음 만난 날부터 오늘까지 그분의 태도는 달라진 것이 없다. 부목사로 가까이서 보며 '웃매무새와 몸가짐은 항상 단정하게, 항상 성경을 소지하고 찬송가는 마지막 절까지,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원고준비는 성실하게' 등 작은 부분까지도 따라해 보고자 노력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있다. 김선도 목사는 나의 영원한 '목회 임상학' 교수님 이시다.

정리: 이선아 기자 andy8950@naver.com



1980년대 본당 대예배실

광림교회 5대 전통(적극적인 신앙, 풍요한 창조, 성실한 생활, 사랑의 실천, 일치된 순종)은 지금의 광림이 있게 한 목회철학이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나름의 목회철학이 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목회 방향이 선포된다. 하지만 선포한 내용을 붙잡고 노력하여 발전시켜 그 열매를 거두는 교회를 찾지못한 적이 없다. 김선도 목사의 목회에서 놓쳐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는 평범한 내용을 탁월함으로 만들어가는 창의성과 식지 않는 열성으로 이끌어가는 지속성이다. "네 시작은 마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욥 8:7)를 그대로 이루어 가는 목회이다.

**교회 성장의 발판이 된 설교와 교육**  
 1971년 젊음과 열정 가득한 41세의 김선도 목사는 광림교회 5대 목사로 부임하였다. 김선도 목사는 가장먼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교회내외의 모든 환경을 새로운 형태로 바꿔 모든 성도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영적으로 침체된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교회는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갈등의 위기도 있어 김선도 목사의 지도력에 도전을 받기도 했지만 설득력 있는 교육으로 담임자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하여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었다. 교회성장에는 김선도 목사의 실천을 부르는 설교와 교육이 있었다. 목사의 설교는 동사(動詞)다.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아~ 설교가 좋다가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기도하며 실천에 옮기도록 했다. 또 트리니티 성서연구를 통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영적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원전지훈련으로 임원 각자가 광림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에 소속감을 갖게 하고, 임원 상

장천의 아흔인생과 목회신학 이야기  
**<목사 김선도>**  
 목회학의 지도관 그리다 / 목회학 참 신났습니다  
 빛의숲서점: 02-2056-5771  
 절찬 판매중

# 광림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탄생합니다!

[www.klmc.church](http://www.klmc.church)

하나, 온라인 예배에 최적화된 홈페이지  
둘, PC와 핸드폰 어느 기기에서나 OK!  
셋, 광림교회만의 풍성한 이야기와 온라인 성경쓰기 까지!



※핸드폰 카메라를 QR코드에 대고,  
화면에 보이는 주소창을  
터치하시면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지금, 새로운 광림교회  
홈페이지를 만나보세요!

※기존 홈페이지 주소 klmc.net을  
입력해도 바로 연결됩니다.



 광림교회 KWANGLIM CHURCH

